

# 石油의 世界史

## —千一夜話의 부활—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석유는** 제1차세계대전때 보다도 제2차세계 대전때에 한층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각국 모두 석유의 덕을 크게 보았다. 전쟁의 제1단계에서 獨逸의 기갑사단은 기계화·동력화된 병력을 갖고, 모든 고전적인 군대를 케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裝甲兵器 외에 항공기는 최상의 공격병기인 동시에 방어병기였다. 해상에서의 병력수송과 보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은 어느 시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연합국들은 제2차대전때에 주축국과 함께 육·해·공군에 대한 석유의 새로운 보급기술을 발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대양 가운데에서 전함에 급유하는 방법과 전투기 또는 폭격기에 공중급유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연유에서 개발되었다. 한편 육상에서도 군대의 전진에 따라 늘리거나 필요에 따라서 구부릴 수 있는 可變送油管(flexible pipeline)이 발명되었다. 그와 같은 機動戰은 모든 것을 석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교전국들이 갖고있는 힘을 최대한으로 투입한 경제총력전에서는 합성휘발유의 제조방법을 개량·완성하는 데에 중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油頁岩과 瀝靑質石炭을 증류하는 낡은 방식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되었다. 戰時에는 언제나 막대한 저장 또는 일정량의 저장능력을 갖고 있는 석유시설, 즉 정유공장과 저장탱크는 제1급의 전략

목표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獨逸의 합성휘발유 제조공장이 있는 겔센킬헨, 레우나, 폴리츠의 중심지는 英國공군의 최대 공격목표가 되었다. 獨逸전투병기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합성석유의 補給源을 파괴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했던 것이다. 당시 합성석유의 가격은 이미 천연석유가격의 4배나 지 5배나 되었다.

1940년 英國은 獨逸軍의 상륙에 대비하여 국토방위를 위한 비상수단으로서 비축되어 있는 모든 석유제품을 바다에 흘려보내고 거기에 불을 지를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나치獨逸이 전쟁의 무대를 中東으로 옮긴 것은 이라크와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 英國의 석유공급源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따라서 1941년 獨逸의 선동에 의하여 이라크에 구테타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英國의 보복은 뜻밖에도 과격한 것이었다. 英國군대는 다짜고짜로 이라크를 점령하고 親獨지도자들을 추방하였다. 이란에서는 英國이 국왕을 강제적으로 퇴위시켰다. 국왕이 공공연히 親獨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석유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제품은 이 전쟁에서 대대적으로 이용되었으나, 가장 가공할만한 병기의 하나는 「그리스의 불」이 현대적으로 모습을 바꾸어 등장한 火焰放射器이며, 擄夷彈이었다. 전쟁말기에는 獨逸의 기갑

1 개 사단당 휘발유사용량은 하루에 2톤에서 3톤 정도였으나, 美國함대의 하루 소비량은 9만톤에 달하였다. 편대에 의한 공습때에 파상공격을 하는 수천대의 비행기들은 24시간동안에 1만7천톤 정도의 휘발유를 소비하였다. 1944년 이후 獨逸의 합성석유공장들은 연합군 폭격기의 최대 공격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합성 석유의 생산은 수개월동안에 5분의 1로 감소하여 기갑부대와 공군부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1945년초 나치참모본부로서는 휘발유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최대의 급선무였을 정도로 戰局은 절망적이었다. 그후 獨逸군대는 석유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반격을 시도할 수가 없었다. 1944년 12월에 알덴느高原'에서 獨逸軍이 보여준 최후의 역습은 그것이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進軍을 위한 연료가 없어서는 獨逸軍이라 해도 戰局을 호전시킬 수 없었다는 점을 나타내 준 것이다.

### 上陸을 돕기 위해 도버해협을 21개의 파이프라인이...

유럽대륙으로의 상륙시 연합군은 작전수행상 불가피한 대량의 연료를 끊이지 않고 공급하기 위해 유연성이 있는 海底파이프라인을 이용하였다. 上陸을 지원하기 위해 도버해협에 부설된 21개의 파이프라인은 英語의 「pipeline under the ocean」의 頭文字를 따서 「PUTO」라고 명명되었다.

石油은 또한 비행장의 활주로 양쪽에 설치된 몇개의 큰 버너에 의하여 불태워져 英國의 비행장을 덮은 짙은 안개를 없애는데 사용되었다. 석유는 폭약(T.N.T), 낙하산용 레이온 및 필수품인 많은 플라스틱제품의 제조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 대한 石油의 가장 놀라운 공헌은 연료유를 제외하면 군대가 대량으로 소비한 합성고무의 제조였다. 전쟁 말기에 美國을 제외한 석유시설의 대부분은 상당한 戰禍를 입었다. 정유공장, 저장탱크, 항만시설, 석유탱크들은 거의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한편 생산쪽을 살펴보면, 전쟁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철강이 부족함에 따라 많은 油田의 개발이 진척되지 못했다. 근대 油井은 그 굴착과 생산설비에 막대한 양의 철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강철파이프 없이는 석유산업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1945년에는 현존하는 모든 석유 회사들이 파괴된 생산설비를 재건하여 중단된 생산을 회복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1946년에 여러가지 조건이 개선되고 철강의 생산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굴착의 개시,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부설, 근대적인 탱커의 건조, 정유공장 등의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곧 도처에서 경이적인 발전이 이룩되었다. 이것이 유럽, 極東, 소련, 中東, 베네수엘라, 루마니아—공산정부에 의하여 석유가 국유화되었다—에서 일어난 모든 석유산업을 자극하는 진정한 르네상스이다.

소련의 石油産業의 발전은 특히 눈부셨다. 최대의 매장량과 주요석유시설은 1940년까지는 코카서스에 있었으며, 그 중심지는 수도인 바쿠였다. 다른 생산지인 우랄 불가, 우크라이나, 北部루지아, 日本의 北方에 있는 사할린을 합해도 이 나라의 생산의 1/4을 차지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불가江과 우랄산맥에 포용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생산이 194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이 지역의 생산비율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노보바크로 불리는 시베리아평원은 더욱 확실히 그의 거대한 힘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한편 소련인들은 많은 새로운 정제기술을 마스터하였다. 그들은 어떤 특수한 지질조건에 있는 토지를 굴착하려고 할 경우 효율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는 터빈식 굴착의 선구자가 되었다. 터빈식 굴착은 그후 프랑스인에 의하여 사용되어 랏그(프랑스 南部에 있는)의 광대한 천연가스田과 파리盆地에서의 수많은 발전에 더욱 위력을 발휘하였다. 소련에서는 석유산업은 『중공업중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은 금세기초에 확보하고 있던 지위를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열망하고 있다. 소련정부는 석유산업에

註：1)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로 뻗어있는 丘陵性山地. 東은 라인江 西岸의 高地로부터, 西는 파리盆地의 케스타地形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南은 룩셈부르크의 모젤江 유역으로 뻗어있다. 北部는 高原性的의 森林지대. 1944년 12월 16일 獨逸軍과 연합군간에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이 전투는 빨찌작전이라고도 부른다.

종사하는 「노동의 영웅」에 대해서는 특히 보상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석유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우수한 노동조건의 혜택을 받고 있다. 소련은 세계 최대의 공업국이 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석유의 공급을 이와 같이 하여 확보하고 있다.

근대산업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석유는 엉뚱하게 富의 同義語로 되었다. 美國에서 최초의 석유붐에 따라 수일만에 막대한 富가 쏟아져 나와 黄金의 王朝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해체되고, 다시 일어서고 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 가운데 일부의 王朝는 세계의 주요한 油田을 장기간 지배하였다. 그와 함께 이 나라의 경제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石油富의 급격한 파도에 따라 영향을 받아 변모하였다. 이처럼 텍사스州는 美國의 가장 부유한 州가 되었으며, 州歲入 가운데 항상 2/3를 石油에 의존하였다.

州民들이 부자가 됨과 동시에 州當局에도 많은 돈이 들어왔다. 석유제품은 모든 소비국정부에게 처음부터 주요한 財源으로 간주되었으며, 세계의 주요생산국에서는 석유산업이 국가경제에 주는 영향은 그보다도 더욱 컸다.

## 검은 황금에 의하여 재현된 千一夜話의 호사

세계대전후 美國은 석유수출국으로서의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따라서 유럽은 대공급국인 베네수엘라와 中東의 유망한 新지역에 점차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美國과 소련을 제외한 이들 세계의 2대 생산지역은 전후에 곧 경이적인 발전을 보여 전례없는 富를 획득하려고 하였다. 黄金의 大河는 그 흐름을 따라 모든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을 변형시키고, 그곳에 千一夜話의 豪奢와 화려한 취미를 소생시키면서 카리브해역과 페르시아灣岸을 침투해 들어갔다. 베네수엘라,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및 이란을 합치면 세계 석유매장량의 80~90%를 차지하게 되며, 급격한 개발에 따라 이들 나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이미 옛부터 개발이 이루어져 온 카리브해역에서는 그 개발이 전후에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였다. 그와 동시에 베네수엘라는 개발회사에 새로운 이윤분배방식을 수락케 함으로써 자국의 배당을 크게 증대시켰다. 처음에는 美

國의 현행방식에 따랐던 베네수엘라는 석유개발에 의한 이익의 1/8을 광구사용료로서 받았다. 그후 여러가지의 방법이 시행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1948년에 유명한 50대50의 생산분배방식이 채택되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석유회사는 석유로부터 얻는 이익을 산유국과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해에 베네수엘라정부는 수백만달러를 축적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막대한 富로 喜喜樂樂하였다. 토지에 대하여 투기가 이루어져 점차 백만장자들이 속속 탄생하였다. 농부가 도시 그것도 주로 카라카스에 정착하기 위해 田地를 집단 방매할 정도로 모든 사업은 돈벌이가 잘 되었다. 이 스페인의 小植民도시는 수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근대적인 도시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민주정부는 마침내 쿠데타로 전복되었다. 그후 6년동안 이 나라를 통치한 독재자 페레스 히메네스는 웅대하고 호화로운 공공사업에 착수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한 사치의 극을 다한 대학도시가 카라카스에 건설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인 자동차도로는 수많은 인상적인 계곡을 뚫고 나아가 도시와 항구, 공항, 해안을 연결하였다.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이 고안한 超근대적인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가장 값비싼 재료가 사용되었다.

이 특이하고 깨끗한 카라카스市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황토색 언덕의 중간에 위치한 각양각색의 랜초(rancho, 오두막집)<sup>2)</sup>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였다. 이들 文盲의 노동자나 인디안들에 대해서도 놀랄만한 소득이 있어 투기나 석유채굴에 의한 벼락부자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다. 水道가 없는 누추한 집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美國製 고급승용차가 주차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냉장고가 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플리바르(베네수엘라의 화폐)는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통화가 되었다. 석유와 금의 흐름은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하나의 대생산지역인 中東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변화가 점차 일어났다. 이란과 이라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유국이었으나, 戰後 그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감소

註：2) 牧場, 또는 목장노동자들의 조잡한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하였다. 그리고 戰爭의 發발직전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油田과 동시에 發見된 카타르油田에서는 1945년 이후 생산이 점차 증가하였다. 매장량이 적은 바레인島에서는 향후 많은 생산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인구가 적기 때문에 큰 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란에서는 처음 「앵글로 페르시아石油」가 이 나라의 왕으로부터 利權을 취득하였으며, 특히 광구사용료를 지불하는데 대해서는 예상조차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英國의 회사가 페르시아帝國(이란)에 로열티를 지불하는데 동의한 것은 말하자면 관대한 태도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1925년에 어느 대담한 士官이 舊카잘朝를 무너뜨리고 1927년에 왕위에 올라 샤 팔레비라고 자칭하였다. 이 근대 이란의 國父는 1932년 英國에 대하여 이권의 개정을 요구하여 6개월간의 어려운 절충 끝에 16%의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승락을 받았다. 이 댓가로서 그는 英國의 이권(그 면적은 2/3로 축소되었다)을 60년간 더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 후 이 회사는 「앵글로 이라리아石油會社」로 개칭하였다.

50% 지불을 요구하였다. 지루한 가격교섭이 런던과 테헤란間에 벌어졌다.

수상인 라즈마라장군은 격노한 英國人들로부터 거부된 제안을 갖고 마지리스(이란議會)에 돌아왔다. 귀국한지 3일후에 라즈마라수상은 암살되고, 모사데크박사가 그의 뒤를 이었다. 1951년 5월 2일 모사데크는 英國의 석유회사를 국유화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였다. 이 때문에 이란은 장기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이 나라 경제는 피폐하였다. 英國은 이란에서 석유의 봉쇄를 단행하여 英國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판매된 모든 석유를 장물로 간주하였다. 석유를 값싸게 입수하려고 하는 일부의 대담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만일 성공하였다고 해도 큰 위험을 수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곧 모습을 감추어버렸다.

### 쿠웨이트왕 세계제일의 부자가 되다

1953년 8월 모사데크는 소련과 美國에 잇달아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마침내 권력의 자리에서 추방되고 자

● 모래의 王國인 쿠웨이트는 전에는 사막 가운데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사막이었다. 페르시아灣에 위치한 이 나라에서는 海岸에 따라서 어부·진주잡이·뱃사람·밀수입자들이 마른 찰흙으로 만든 누추한 집에서 살며 빈곤한 생활을 하였었다. 農事는 담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음료수는 150킬로미터 떨어진 北部에 있는 이라크의 샷트·엘·아라브江으로부터 운반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

전쟁중 레자 샤는 연합군으로부터 退位를 강요받고 아들인 모하메드 레자 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戰後 이 나라의 석유생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中東이 자랑하는 아바단정유공장은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였다.

이란은 석유생산량에 있어서 中東의 모든 국가중 최대 산유국이 되었다. 1948년 이후 베네수엘라는 페르시아灣에 위치한 모든 산유국들에게 강력한 자극을 주어 왔으나, 이번에는 이란이 「앵글로 이라리아石油」에 이윤의

헤디장군이 수상이 되었다. 이란, 美國 英國 등 3者間에 교섭이 이루어진 결과, 1954년 10월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국제콘소시엄에 의한 이란석유의 개발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그 기간은 25년간이며 그 후 5년간씩의 연장이 인정되었다. 새로 「브리티시 피트롤리움」(BP)으로 개칭되기 전의 「앵글로 이라리아」는 新콘소시엄의 40% 주식과 연간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로알 더치 셸, 프랑스石油, 美國의 5大會社와 獨立系의 하나인 걸프가 나머지 60%를 나누어 가졌다.

멕시코에서 석유의 국유화가 베네수엘라의 발전을 촉진했던 것과 같이, 앵글로 이라니안의 국유화는 이란의 이웃국가들, 특히 쿠웨이트에 직접 편의를 가져다 주었다. 이란의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아라비아의 小公國인 쿠웨이트는 거의 무한하게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이에 주목한 「앵글로 이라니안」은 「걸프石油」와 이 富를 共有하게 되었다. 이 英國회사는 이란에서 당한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 쿠웨이트의 석유개발을 촉진하였다.

쿠웨이트宮廷은 그 이후 소위 「이익절반」방식에 의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얼마 안되어 엄청난 재산이 왕의 金庫에 굴러들어왔다. 이때문에 왕은 수년만에 세계제일의 巨富가 되었다. 이 老君主는 조상전래의 방침에 따라 국가를 통치함과 아울러 국가발전에 정열을 불태우는 專制의 이슬람교도였다. 그의 수중에 있는 거대한 재산이 이 작은 국가의 정치상태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고 해도, 그의 경제적 세계관은 마법의 지팡이를 한번 휘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는 것처럼 일변하였다. 쿠웨이트에서 일어난 일들은 千一夜話의 가장 매혹적인 現代版이다. 아름다운 시엘라자드라고 해도, 용감한 신밧드라고 해도 이 이상의 것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쿠웨이트는 전에는 사막 가운데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사막이었다. 페르시아灣에 위치한 이 나라에서는 海岸에 따라서 어부·진주잡이·배사람·밀수업자들이 마른 찰흙으로 만든 누추한 집에서 살며 빈곤한 생활을 하하였다. 農事는 담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음료수는 150킬로미터 떨어진 北部에 있는 이라크의 샷트·엘·아라브江으로부터 운반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 마르코 폴로를 습격했던 해적의 자손들이 지금은 機械工이 되다

한번 석유가 분출하자 수개월만에 이 나라의 수도 쿠웨이트는 완전히 변해 버렸다. 호화롭게 꾸며져 있으나, 어딘지 모르게 조화가 되지 않는 건물들이 찰흙으로 지어진 낡은 집을 대신하였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큰 거리를 따라서 네온 사인으로 반짝이는 근대적인 상점이 줄을 잇고 들어 섰으며, 그 상점에서는 서양과 동양에서 생산된 온갖 상품, 즉 스페인의 가구, 프랑스의 香水, 獨逸의 카메라, 美國의 냉장고, 日本의 라디오, 印度의 絹

製品 등이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다. 군용도로에 하나뿐인 로타리의 한단계 높은 곳에서 교통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관은 라마(lama)와 낙타를 대신한 각양각색의 훌륭한 자동차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 사막에서도 유목민들은 이미 트럭 없이는 이동하지 않는다.

이 식견있는 專制君主는 모든 자녀들을 위한 학교와 30만명 밖에 안되는 국민의 병을 무료로 진료하기 위한 병원을 건설하였다. 식료품배급차는 무료식사를 배급하기 위해 사막을 중형으로 달리고 있다. 전에 가장 稀小품이었던 물의 확보는 현재에는 日常茶飯事가 되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海水의 담수화공장을 건설하였기 때문이다. 전기가 들어옴과 동시에 각 가정에는 냉장고, T.V, 라디오 및 에어컨이 보급되었다.

모래의 王國은 中東에서 가장 근대적인 나라가 되었으며, 다른 많은 국가들에 대하여 여러가지 점에서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이 나라의 왕이 실시한 것은 다른 나라가 모방할 수 없는 것이다. 적은 인구의 국민들에게 분배된 이 무한의 석유자원에 의하여 쿠웨이트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이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은 나아가 국민개개인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왕은 직선의 훌륭한 도로를 건설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보기도도 비참한 지저분한 집들을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다. 그 외에 유력한 모든 기업가 또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쿠웨이트인을 사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때문에 쿠웨이트의 국민들은 명의대어라는 손도 놀리지 않는 장사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금전의 가치관념마저 갖지 않고 그때까지 낙타의 모피로 만든 갈색의 텐트나 움막속에서 생활하던 가난하기 짝이 없던 文盲人들에 의하여 막대한 富가 수개월만에 축적되었던 것이다.

페르시아灣에 연한 모든 국가들은 쿠웨이트와 그 국민들에게 갑자기 쏟아져 내린 富의 영향을 받았다. 장기간 마르코 폴로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아주 오래전 해적의 자손들이나 달밤에 배를 띄우던 詩의인 어부들은 이러한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이웃의 富에 대하여 경멸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들은 더러워진 돛을 달은 갈색의 큰 배에 타고 마치 신밧드처럼 모험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이윽고 그들의 배는 곧 항구에 머무르게 되었다. 돛과 밧줄은 접어 두고, 진주잡이들은 이미 잠수하려고 하지 않았

다. 자녀들은 훌륭한 기계노동자, 굴착기사, 자동기계의 注油工이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뚝대에 기어오르는 대신에 前뱃사람의 자녀들은 석유개발을 위한 땅대의 계단을 올라갔다. 파이프라인속을 소리없이 흐르는 대량의 석유는 전에 海底에서 채취하던 진주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또한 그보다도 카타르에서 쿠웨이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화가 일어났으며, 바레인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다 늦게 보다 합리적으로 질서있게 이루어졌다. 아라비아의 東海岸에 면한 하사에서는 석유개발이 1938년 이래 계속되었으나, 특히 1946년부터 큰 발전을 보게 되었다. 훌륭한 國王 아브드 엘 아지즈 사우드를 정점으로 한 사우디 아라비아王家는 결코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황금을 그때부터 물쓰듯이 낭비하기 시작했다. 石油의 생산은 매년 수백만톤씩 증가하였다. 수백만톤 증가할 때마다 수백만달라가 國庫로 들어왔던 것이다.

### 山洋지기들을 위해서 빨간색의 캐디락이...

이와 같은 분별없는 낭비는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헝기왕성한 國王과 그 일족—그 수는 수백명에 달한다—은 소도시의 인구를 넉넉히 부양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 왕실예산을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쓸데없는 쇼핑, 무분별한 지출,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재정적인 관리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재산을 효율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석유회사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장래를 위하여 수포에 서명해 주었다. 쿠웨이트와는 달리 사우디 아라비아는 5~6백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광대한 나라이며, 국가전체는 사막지대는 아니나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砂漠性의 넓은 면적에 분산되어 있다.

한편 사우드의 권력하에서 통합된 이 나라는 각지역에 따라 문화의 정도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富의 분배를 통하여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좋다. 석유의 생산에 따라서 막대한 재산이 축적되고, 주요도시에는 화려한 색상의 자동차, 시대에 뒤떨어진 호화롭고 장중한 저택, 싸구려 공업제품이 범람하였다. 그러나 이 나라의 대부분은 본질적으

로는 발전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못하였다.

전에는 전체가 사막지대였던 石油海岸에 인공적인 石油都市가 하나하나 탄생하였다. 이 석유도시의 주민의 거의 모두를 구성하는 美國人들은 이 나라의 제도에 따라서 엄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댓가로 상당히 높은 급여와 보다 빠른 승진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또한 석유는 육지에서 해안을 향하여 중단없이 수송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는 해상에서 거대한 탱커가 그 석유를 滿載하고 세계각지로 운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페르시아에 연한 또 하나의 아라비아小王國은 쿠웨이트와 거의 같은 전철을 밟았다. 극히 제한된 소식통 이외에 카타르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석유의 굴착작업은 1946년에 재개되어, 中東의 모든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가난한 어부, 도둑, 밀수입자, 진주잡이, 목초를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으로 구성된 2만5천의 주민이 아라비아半島의 東部해안에 거대한 사마귀처럼 붙어있는 비참할 정도로 황폐된 이 半島의 전인구를 구성하고 있었다.

수년만에 카타르의 山洋지기와 게으른 뱃사람들도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들은 냉방이 들어오는 별장에서 살며, 빨간 장미꽃 색깔의 캐디락을 타고 돌아다녔다. 왕과 왕족들은 많은 궁정에서 살며 순금의 받판을 부착한 고급승용차가 아니면 타지도 않았다. 그들의 부인들은 浴槽속에 파리의 최고급 香水를 몇리터씩 넣었다. 이렇게 살기 좋은 하렘(harem : 회교도 귀족여자의 거실)안에는 밤새 라디오와 T.V.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빈곤이 사라진 곳은 이곳만이 아니었다. 카리브해역의 국가들이나 전에 美國에서와 같이 中東지역에서 석유는 그 무한의 富를 입증하였다. 그것은 매일처럼 사람들을 열광케 하고 잃어버린 千一夜話를 소생시켰다. 갑자기 흘러 나온 財寶와 상상도 할 수 없던 생활방식에 익숙해져 버린 中東人들은 이 不可思議한 이야기의 재현에 놀라지도 않았다. 戰後 수년동안에 석유가 갖고 있는 가능성의 한계는 확대되고, 현대인들은 東洋人이건 西洋人이건 관계없이 옛날 슈멜들의 先祖가 품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魔法의인 기대를 석유의 신비에 다시 걸었던 것이다. ☐ <계속>